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나눔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에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옷 한 벌 가진 이에게 나눠줘라 먹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습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덕분에 삽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름다운 배움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허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눔이란 그런 것이다.

성서에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요한 3,18)."라는 구절이 있다. 나눔의 첫걸음은 '공감' 이고

함께 함'이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반투족의 말이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애용했던 말이다.

어느 날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게임을 했다. 어느 부족 아이들이 모여 놓고서, 큰 나무 밑에 초코렛, 과자, 사탕이 가득 담긴 선물바구니를 놓아두고서 말이다.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달 리기를 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 모두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게임을 시작한 학자는 이를 가져가기 위해 틀림없이 기를 쓰고 달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출발신호를 주는 순간 아이

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잡고 한 줄로 뛰어갔던 것이다. 모두가 1등을 한 것이다. 도란 도란 웃음 띤 얘기를 하면서 나눠 먹었다. 하도 신기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모두 "우분투" 라는 말을 합창했다.

한 아이가 대표로 일어나서 "내가 1등을 해서 과자를 독차지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슬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과연 문명사회에서도 그랬을까? 그 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나머지 5대륙에서 동일 실험을 했었다.

그런데 급변전이 나타났다. 모

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1등을 하려고 기를 썼다는 것이다. 결국 1등이 독차지해버렸다. 6대륙 가운데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불어 나누는 행복을 느끼며 손을 잡고 함께 달렸던 것이다. 철단을 달리는 현대 문명세계. 이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체질화된 경쟁문화만 있었던 것이다.

승자독식과 갑질문화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 아닌가. 온갖 탐욕으로 얼룩져가는 현대인들. 탐욕은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은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기업들,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그 탐욕을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민족은 잠시, 마치 짜디짤 해수 들어간 사람들이처럼 또 다른 목마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의 끝은 죽음밖에 또 있었는가.

성서의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임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뭐가 다를까. 가난하다라도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다. 인간은 인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식물도 군락제가 있듯이, 서두에서 말한 세례자 요한의 말을 곱씹어 보면 어떨까.

社說

초등생 학교폭력 대응책 있어야

학교폭력이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 10명 중 2명가량은 '공격형' 집단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기준 전체 학폭 심의 건수는 3만1249건으로, 2016년(2만3673건)에 비해 32% 증가했고, 학폭 집단 가해 학생 수 역시 2015년 2582명에서 2017년 5178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학폭 자체의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경숙 원광대 부교수 박종효 교수는 원광대 등의 논문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심리사회적 특성 탐색'에 따르면, 81.0%는 비공격형 집단, 11.5%는 '목적공격형 집단', 6.9%는 '혼합공격형 집단'으로 구분됐다. 논문은 또래 관계 진단 프로그램인 클래스 넷에 구축된 자료 중 초등학생 1641명(남 772명·여 869명)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해 공격성을 분류했다.

공격성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학폭과도 관련돼 있어 시의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동기와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모양을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격성 감소 노력은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자기존중, 공감, 책임감 등과 같은 긍정 심리와 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공격형 집단은 또래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공격성을 보고한 집단에 속했고 반응적, 목적적 공격성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특히 목적적 공격성 유형에 따라 높아 도구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이유가 존재하면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 프로그램인 클래스 넷에 구축된 자료 중 초등학생 1641명(남 772명·여 869명)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해 공격성을 분류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하는 선거가 되기를

"너는 예사가 서울대의대만 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의 한 대사다. 극중 부모들은 자식들을 서울대의대 합격이라는 결과를 위해 불꽃 가리지 않고 쳐열한 입시전쟁을 치른다. 아들친구가 살인 누명을 쓰자 아들의 내신이 오를 거라 내심 기대하는 아내, 서울대 진학을 위해 신경 끄고 공부하 하라는 엄마, 과장된 면이 없진 않지만 결과지 상주의 라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과정이 어떻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 상주의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공정 선거' 라는 과정은 무시한 채 당선

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금품 수수, 흑색·비방선진이 일부 후보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그렇게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매진했다.

어때졌 '당선'이라는 눈앞의 결과만 쫓는 과열된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를 위탁하여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첫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며 돈 선거는 안 된다는 의식이 후보자와 조합원들에게 자리를 잡았고, 조합장선거가 조합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전보다 깨끗하게 진행돼 '돈 선거' 라는 오랜 악습을 깨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러한 발전과 의식의 성장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점차 사라지고 '정책 선거·공명선거'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끈이 좋다' 라는 흔히 알려진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 조합발전의 첫 단추는 후보자 스스로 조합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막대한 권한만큼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다. 이를 유념하여 후보자 스스로 큰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첫 단추는 올바른 조합장을 뽑는 것이다. 금품지역이나 인맥 등에 좌우되어 현명하

지 못한 선택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후보자의 공약, 자질, 소신 등을 꼼꼼히 살펴 조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 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약 10여일 뒤부터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른다. 앞선 선거가 다져놓은 기초를 잘 이어받아 올바른 선거의식이 후보자와 조합원들에게 더욱더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행위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 지역사회의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원중 / 보성군선관위 일반지원단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臨深履薄

임할 깊을 밟을 얇을

임심이

臨深履薄

▷ 뜻: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이 세심히 주의(注意)하여야 함.

湖南新聞

대포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It promotes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generations.